

桂枝麻黃各半湯의 四象體質 病證用藥에 관한 研究

김정주 · 박성식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f a Process to Sasang Constitutional Pathology about Gyemagakban-tang

Kim Jung-Ju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ere are two kind of 『Dongyi Suse Bowon』 - 『GaboBon』 and 『ShinchukBon』. These books are similar each other, and there are difference from the contents of books. Among them we studied the sentence of Gyemagakban-tang between 『GaboBon』 and 『ShinchukBon』 of 『Dongyi Suse Bowon』.

2. Methods

The study is to compare to 『GaboBon』 and 『ShinchukBon』 on the basis of texts of 『Dongyi Suse Bowon』.

3. Results

- 1) We can see that Lee Je-Ma was trying to cure Soeumin by the treatment of ascent and grow up Yang(陽) and Ki(氣) as seen in the text of Gyemagakban-tang.
- 2) We can see that Lee Je-Ma considers sweating as the symptom of Taeumin and evacuating of stools as the symptom fo Soyangin in the text of 『GaboBon』.
- 3) We can see fever in the text of Gyemagakban-tang is the fundamental of the pathology of Soyangin.

4. Conclusions

In addition more bliographic study, clinical investigation will be needed.

Key Words : Gyemagakban-tang, GaboBon, ShinchukBon, stool, fever, sweat

I. 緒論

四象醫學은 四象人에 대해 체질마다 體質病證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病證藥理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體質病證과 病證藥理의 구조는 東武 李濟馬의 여러 저작들이 발견되면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판본에 따라 변해온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東武 李濟馬의

저작으로 알려진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이 발견되면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이하 甲午本)의 연구¹⁾²⁾나 甲午本과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의 비교 연구³⁾⁴⁾가 활발히 이루어지

• 접수일 2005년 2월 24일; 승인일 2005년 4월 1일
• 교신저자 : 박성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nlnorae@hanmail.net

1) 이진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2)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3) 김명균, 박성식.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37-43.
4)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26-3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

고 있다.

桂枝麻黃各半湯(이하 桂麻各半湯)은 麻黃 芍藥 桂枝 杏仁 甘草 生薑으로 구성된 傷寒論 太陽病 처방으로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體質 病證用藥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다. 그러나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桂麻各半湯의 인용 부분과 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변화가 있다. 즉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太陽病厥陰證, 少陽人 表寒病論의 白虎湯·千金導赤散 설명부분, 太陰人 表寒病論의 麻黃發表湯·葛根解肌湯 설명부분 및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說方藥에 나타난다. 반면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太陽病厥陰證의 설명부분은 변화가 있지만 桂麻各半湯 조문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少陽人은 裏熱病論의 瀉白散과 白虎湯 설명부분에서 인용되어 表病에서 언급되던 것이 裏病으로 조문의 이동하였다. 太陰人은 甲午本の 表寒病論 본문에 있던 내용은 辛丑本 表寒病論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說方藥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桂麻各半湯을 인용한 體質病證用藥에 대한 동무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약물의 구성으로 볼 때 少陰人 藥物과 太陰人 藥物만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少陽人 病證論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을 통해 體質病證 藥理가 단순히 藥物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桂麻各半湯이 인용된 조문의 비교를 통해 四象體質病證과 體質病證用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각 체질에서 인용된 桂麻各半湯 용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인용된 원서에서 桂麻各半湯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少陽人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傷寒論에서 인용되었고, 少陰人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東醫寶鑑에서 인용되었으므로 傷寒論과 東醫寶

鑑에서 桂麻各半湯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東醫寶鑑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傷寒論 뿐 아니라 活人書에 기초한 부분이 있어 活人書에서 桂麻各半湯의 용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2. 少陰人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少陽人·太陰人과는 용례의 차이가 있고 甲午本과 辛丑本을 비교해 볼 때 病證藥理에도 변화를 보여 甲午本과 辛丑本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3. 少陽人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熱多寒少와 身痒을 桂婢各半湯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身痒에 대한 관점과 熱에 대한 少陽人 병증을 살펴 보았다.

4. 太陰人에 인용된 桂麻各半湯은 용례가 없지만 麻黃湯 인용조문을 중심으로 汗과 熱에 대한 太陰人 병증을 살펴보았다.

5. 본 연구에 인용된 판본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 1) 活字화된 1901년(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
- 2) 현존하지 않지만 東武가 甲午年에 저술한 『東醫壽世保元』의 원본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
- 3) 1951년 金九翊이 筆寫한 것을 朴性植이 譯解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草本卷’이라 칭하였다.

III. 本論 및 考察

1. 傷寒論·東醫寶鑑·活人書에서 桂麻各半湯의 용례

1) 傷寒論⁵⁾

「辨太陽病脈證并治法 上」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慾愈也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 汗更下更吐 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⁶⁾ 不能得

5) 蔡仁植 著. 傷寒論譯註. 高文社, 서울, 1995:27-28.

6) 脈微弱者 이후 未欲解也까지 康平本 傷寒論(원제 傷寒卒病論, 이후 康平本)에는 註로 표시되어 있다. 『康平·傷寒論』은 日本 康平 3年(1060년) 丹波雅忠이 抄錄한 傳寫本으로 1936년 大塚敬節이 처음 학계에 보고한 『傷寒論』 古本이다. 이 본은 唐代的 卷子本이라고 여

(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병증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小汗出 身必痒 宜桂枝麻黃各半湯”

【桂枝麻黃各半湯】

桂枝 一兩十六銖去皮 芍藥 生薑切 甘草炙 麻黃 各一兩去節 大棗四枚 杏仁二十四個

2) 東醫寶鑑⁷⁾

六經形證用藥

太陽病似瘧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面色反 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 得小汗出 身必痒 宜桂麻各半湯(仲景)”⁸⁾

厥陰形證用藥

“傷寒六七日 煩滿囊縮 其脈尺寸俱微緩者 足厥陰肝經 受病也 其脈微浮爲欲愈 不浮爲難愈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必發熱惡寒 似瘧 爲欲愈 宜桂枝麻黃各半湯 若尺寸俱沈短者 必是囊縮 動氣入腹 宜承氣湯下之(活人)”⁹⁾

亡陽證

“太陽證 惡寒 脈當浮而緊 今反脈浮而遲 遲爲亡陽 不能作汗 其身必痒 桂麻各半湯方見上太陽病似瘧主之(入門)”¹⁰⁾

【桂麻各半湯】 治太陽病 脈微, 身痒

麻黃一錢半 桂枝 芍藥 杏仁各一錢 甘草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入門).

3) 活人書¹¹⁾

活人書에는 문답식으로 桂枝麻黃各半湯 및 桂枝二越婢一湯의 用例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太陽病(傷寒)에 發汗하기 위해 사용하데 麻黃湯보다 輕할 때 桂麻各半湯을 사용한다¹²⁾.

거지고 있으며 1065년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古本 중의 하나이다. “박경모 최승훈, 『康平·傷寒論』의 考證을 통한 『傷寒論』과 『黃帝內經』의 비교연구. 대한원건의사학회지, 1995;9:263-300”에서 大塚敬節, 康平傷寒論に就て, 漢方と漢藥, 1936;3(12):1-7을 재 인용.

- 7) 許浚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1999.
- 8) 上揭書: 1002.
- 9) 上揭書: 1015.
- 10) 上揭書: 1058.
- 11) 朱肱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아티건, 서울, 1998.
- 12) 上揭書: “傷寒之候 發熱 惡寒 頭疼 腰脊痛 脈緊 無汗 宜發汗而解. 麻黃湯主之. 輕者 只與桂枝麻黃各半湯.”

- ② 傷寒六七日 厥陰病에 脈浮緩하면 사용한다¹³⁾.
- ③ 太陽病 熱多寒少에 不嘔 清便自可 할 때 桂麻各半湯을 사용하고 脈微弱하면 桂枝二越婢一湯을 사용한다¹⁴⁾.
- ④ 傷寒表證에 和解其表하기 위해 사용한다¹⁵⁾.
- ⑤ 身痒하더라도 面亦有熱하면 小汗出하기 위해 桂枝麻黃各半湯을 사용한다¹⁶⁾.

2. 少陰人 病證論의 인식

辛丑本 少陰人 病證論 중 太陽病厥陰證에 인용되어 있는 桂麻各半湯 조문은 『東醫寶鑑』¹⁷⁾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甲午本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 太陽病厥陰證의 病理를 설명하는 부분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傷寒六七日 煩滿囊縮 尺寸俱微緩者 足厥陰¹⁸⁾經 受病也 其脈微浮爲欲愈 不浮 爲難愈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必發熱惡寒 爲欲愈 宜桂麻各半湯 若尺寸 俱沈短者 必囊縮 毒氣入腹 宜承氣湯下之 速用承氣湯 可保五生一死 六七日 脈微浮者 否極泰來 水升火降 寒熱作而大汗 解矣.”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및 甲午本 「少陰人 外感腎病論」

“論曰 張仲景所論 厥陰病 初無腹痛下利等證而

- 13) 上揭書: “問 傷寒六七日 煩滿 囊縮 其脈尺寸俱微緩 此足厥陰肝經受病也. 厥陰病 其脈微浮 爲欲愈, 不浮 爲未愈, 宜小建中湯.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 必發熱惡寒 似瘧 爲欲愈, 宜桂枝麻黃各半湯.”
- 14) 上揭書: “然 太陽病 亦有熱多寒少者 須仔細看脈與證也. 熱多寒少 不嘔 清便自可 宜桂枝麻黃各半湯. 日脈浮者 雖熱多寒少 自可發汗. 若脈弱者 無陽也 桂枝二越婢一湯主之. 熱多寒少 而大脈遲者 營氣不足 血少故也. 先以小建中湯加黃芪 最良. 尺脈尚遲 再作一劑. 或太陽證宜汗 而其人適失血 及下利 則頻頻與少桂枝湯 使體潤黎黎 連日 當自解.”
- 15) 上揭書: “問 仲景 有發汗者 有和解之者. 傷寒表證 須看榮衛淺深. 故仲景有正發汗湯劑 如麻黃湯 桂枝湯 大青龍湯是也. 有和解其表 如小青龍湯 桂枝麻黃各半湯 白虎湯 桂枝二越婢一湯 柴胡桂枝湯 小柴胡湯之類是也. ……如遇病輕 但當和解之 所謂 和其榮衛 以通津液 令其自解也.”
- 16) 上揭書: “又問 身痒者 何也? 脈浮而遲. 遲爲無陽 不能作汗 其身必痒. 太陽病七八日 脈微而惡寒 而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也. 小柴胡湯主之. 若重反發汗 則氣虛 必癢 耳聾無聞. 素無熱人 可芍藥甘草附子湯. 素有熱人 可黃芪健中湯. 面亦有熱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小汗出 身必當痒 宜桂枝麻黃各半湯.”
- 17) 許浚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東醫寶鑑. 卷二 雜病篇 寒(上) 厥陰形證用藥. 법인문화사, 서울, 1999:1015
- 18) 『東醫寶鑑』에는 足厥陰肝經이라 되어 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足厥陰經이라 되어 있다.

六七日 猝然而厥 手足逆冷則 此非陰證之類也 乃少陰人 太陽傷風惡寒發熱汗自出之證 正邪相持日久 當解不解而 變爲此證也 此證 當謂之 太陽病厥陰證也 此證 不必用 當歸四逆湯 桂麻各半湯而 當用 麥萸湯 人參吳茱萸湯 獨參八物湯 不當用 大承氣湯而 當用 巴豆”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今考更定 此厥陰證 卽太陽病危證也 此證當用 獨參官桂理中湯 薑朮壯胃湯 囊縮毒氣入腹者 當用 巴豆丹半粒 因以薑朮壯胃湯 三四服以壓之 汗出人 中兼用黃芪蘇葉湯 又連日服 此證 當歸四逆湯 桂麻 各半湯 藥力單薄 重病危證 快無可恃 元不當用” 甲午本 「少陰人外感膈病論」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는 太陽病厥陰證을 少陰人이 腹痛下利 없이 갑자기 手足厥冷해지는 것으로 太陽病이 오래 지속되어 變證된 것이라고 하였다. 甲午本에 따르면 이는 少陰人 傷寒病에 正氣와 邪氣의 抗爭이 오래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陽氣가 上升하여 膈膜을 防備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胃氣가 바깥에서 寒氣를 막는 힘 역시 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穀氣가 大腸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져서 결국 膀胱이 大腸으로부터 溫氣를 받는 것이 어려워져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正邪相爭이 오래되어 결국 胃氣가 약해지고 大腸의 溫氣가 薄해지는 것¹⁹⁾으로 이는 表病에서 시작된 것이라도 病程이 오래되어 裏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²⁰⁾ 太陽病危證이라고 하였다.

치료에 있어서 甲午本에서는 表局의 膈膜 衛氣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桂枝類로 가능하지만 裏局인 大腸의 溫氣가 薄어지는 것은 理中湯과 같은 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當歸四逆湯과 桂麻各半湯은 약력이 약하여 사용할 수 없고 獨參官桂理中湯, 薑朮壯胃湯을 사용해야 한다. 東武는 傷寒論의 厥陰病을 太陽病의 범주에 놓으면서도 처방은

理中湯계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甲午本에서 太陽病厥陰證이 危證이므로 부족한 臟氣를 직접 도와주어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辛丑本에서는 桂麻各半湯과 當歸四逆湯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茱萸湯 人參吳茱萸湯 獨參八物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太陽病厥陰證이 表病에서 시작되어 裏病까지 전변된 危證이므로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도와주려고 사용하였다면 外感에서 시작되어 正邪相爭이 오래되었으므로 人參吳茱萸湯이나 獨參八物湯으로 升陽益氣하는 방법이 더욱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즉 表에서 시작하여 正邪의 相爭이 오래되었으므로 少陰人의 表陽을 올려주면 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張仲景이 논한 厥陰病은 三陰經중 厥陰經까지 病이 진행된 것으로 手足厥冷, 下利 등의 寒證이 나타나지만 厥陰病의 大綱인 消渴 氣上動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嘔出 下之利不止의 증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寒熱錯雜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東武는 이러한 厥陰病의 의미를 少陰人 表病에서 병이 풀리지 않고 正邪가 相爭하여 病程이 길어지면서 變하는 것으로 보았고, 치료에 있어서도 甲午本에서는 陽煖之氣에 초점을 두어 理中湯계열을 사용하다가 辛丑本으로 오면서 少陰人의 表陽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少陰人의 表病에서 熱이 있어도 升陽하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少陰人은 기본적으로 冷이 勝하므로 煩熱汗出이 陽이 盛한 것이 아니라는 조문²¹⁾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甲午本에서는 小한 臟氣만을 위주로 생각하여 치료에서 保命之主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臟腑 大小에 있어 좀 더 폭넓게 치료에 대한 인식을 하였고, 病證論도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太陰人 病證論의 인식

太陰人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19) 甲午本 「少陰人外感膈病論」: “少陰人 傷寒病 正邪相爭 累日不決則 陽氣之上衝於膈膜者 蹇滯 故 胃氣之外以禦寒氣而 中以所自立者 亦單弱也 胃氣單弱則 穀氣之下達於大腸者 亦微薄 故膀胱之受溫氣於大腸者 又微薄也 膈膜之衛氣蹇滯者 桂枝之屬 可以補之也 大腸之溫氣微薄者 理中之屬 可以補之也 蓋太陽病厥陰證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而 大腸溫氣微薄 故猝然而厥也”

20)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21)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陰盛格陽於上則陽爲陰抑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外通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水外炭陽將亡之兆也”

가장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조문의 이동도 많이 나타난다. 太陰人에서 桂麻各半湯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今考更定 此證 不²²⁾當用桂麻各半湯 當用葛根解肌湯” 甲午本 「太陰人外感腦顛病論」

【桂麻各半湯】

麻黃 一錢 五分 芍藥 桂枝 杏仁 各一錢 甘草七分 生薑三片 大棗 二枚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및 甲午本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辛丑本 太陰人 病證論에서는 桂麻各半湯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고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에만 나타나는데 甲午本에서는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뿐 아니라 太陰人 表寒病論에서 桂麻各半湯의 인용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葛根解肌湯과 함께 麻黃湯, 麻黃發表湯 조문 이후 나타난다.

甲午本에서 桂麻各半湯의 인용조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방사용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傷寒論의 麻黃湯 조문에 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桂麻各半湯을 麻黃湯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太陰人 表寒病에서 發汗의 치료를 하기 위함이다. 이는 活人書에서 “傷寒之候 發熱惡寒 頭疼 腰脊痛 脈緊 無汗 宜發汗而解 麻黃湯主之 輕者 只與桂枝麻黃各半湯”라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즉 桂麻各半湯은 發熱惡寒과 骨節痛을 輕하게 호소하는 환자에서 發汗할 때 桂麻各半湯보다는 葛根解肌湯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1) 땀

太陰人의 完實無病은 汗液通暢이고 이런 맥락으로 太陰人 表病은 전문에 걸쳐 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太陰人에서 땀이 잘 난다는 것은 太陰人의 부족해지기 쉬운 呼散之氣를 보충하여 약한 臟氣인 肺局을 도와주는 의미이므로 특히 表病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太陰人 表病論중 傷寒論의 麻黃湯을 빌어 언급

하되, 麻黃湯의 桂枝와 甘草는 太陰人에게 맞지 않으므로 대신 麻黃發表湯을 사용하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²³⁾.

甲午本에서는 桂麻各半湯을 葛根解肌湯과 함께 언급하고 하는데 葛根解肌湯의 사용례는 甲午本에서 寒厥四五일에 無汗한 증상에 熊膽과 함께 사용²⁴⁾되는 경우가 있어 太陰人 表病에서 葛根解肌湯을 인용한 것은 發汗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太陰人 表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汗出을 통해 太陰人의 呼散之氣를 돕는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桂麻各半湯 또한 傷寒論에서 微發汗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甲午本에서도 太陰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어 땀을 내는 목적으로 桂麻各半湯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汗出의 의미를 표출하기는 麻黃發表湯으로 충분하고 桂麻各半湯證이 太陰人 病證이 아니라 少陽人 病證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桂麻各半湯 인용조문의 증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즉 太陽病에 瘧疾처럼 發熱惡寒하되, 熱이 많고 寒이 적은 증상중에서도 面色에 熱證이 보이면 微汗出하는 桂麻各半湯을 사용하라고 한 것처럼 熱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熱

少陰人은 表熱證과 裏寒證의 병증으로 나뉘지만 少陽人과 太陰人은 모두 裏熱證의 병증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모두 裏熱證이 나타나므로 그 병리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桂麻各半湯 조문에서도 기존문헌에 나타난 熱多寒少의 주증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甲午本에서는 太陰人과 少陽人에서 모두 外感에 초점을 두고 表病에서 다루면서 太陰人은 汗出로, 少陽人은 大便으로 熱을 처리하려고 하였다.

23) 辛丑本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張仲景曰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主之” “論曰 此即 太陰人 傷寒背佳真表病 輕證也 此證 麻黃湯 非不當用而 桂枝 甘草 皆爲蠱材 此證 當用 麻黃發表湯”

22) (不) 甲午手抄本에는 ‘不’가 없지만 동의수세보원 본문에서 2개 이상의 처방을 제시할 때 當用을 각 처방명 앞에 붙인 형식은 보이지 않고 또한 문맥상 볼 때 桂麻各半湯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葛根解肌湯을 쓰라고 한 것이 옳다고 보여지므로 當用桂麻各半湯 앞에 ‘不’자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24) 甲午本 「太陰人外感腦顛病論」: “今考更定 太陰人病 寒厥 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者 危證也 當用葛根解肌湯 調下熊膽 三分 又連用葛根解肌湯 二三服 翌日 則晝服桔梗生脈散 夜服葛根解肌湯 每日如此服 或八九日十餘日 以至於病快解 若熊膽闕材 則當用升麻開腦湯 二三服”

그러나 辛丑本 太陰人 病證論의 본문에서 桂麻各半湯 내용은 사라지고 少陽人 病證論은 裏病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는데 熱多寒少의 증상 때문이라 생각한다.

太陰人 裏病證은 甲午本에서는 ‘腹痛 自利病, 食滯痞滿, 下痢 膿血病, 腹脹 浮腫病’ 등의 개념만 있다가 辛丑本에 와서야 太陰人 裏病을 燥熱病으로 인식하게 된다. 太陰人의 吸聚之氣가 強하여 肝熱이 太盛하면 상대적으로 肺局이 弱하여 肺燥가 되는 병리 기전이다. 燥熱證 증상으로는 眼病, 引飲, 大便燥와 手指焦黑斑瘡病, 물을 마시되 小便이 많아지는 병증이 있다. 또 太陰入에서 燥證의 面色은 黃赤黑²⁵⁾이고, 피부 증상도 대부분 燥證의 병리가 나타나난다.

이처럼 甲午本 太陰人 裏病에서는 燥熱의 인식이 없다가 辛丑本으로 오면서 燥熱의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少陽人 裏熱證의 大便不通, 胸膈熱證 및 小便赤澀으로 표현되는 火熱²⁶⁾의 병리와는 차이가 나타나므로 太陰人 燥熱證에 熱多寒少湯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조되면서 桂麻各半湯의 증상은 太陰人의 燥熱의 병리가 아니라 少陽人의 火熱의 병리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辛丑本에서 太陰人 桂麻各半湯 용례가 사라지면서 經驗設方 또한 개조되어졌어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4. 少陽人의 病證論의 인식

辛丑本 少陽人 裏病에 인용된 桂麻各半湯의 조문은 甲午本에서는 少陽人 表病에서 언급하고 있다. 桂麻各半湯의 인용조문에는 熱多寒少의 증상과 身痒의 증상이 언급되어 있다.

1) 身痒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更吐 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必痒 宜桂麻各半湯”²⁷⁾

“太陽病 似瘧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 亡陽也 身不痒 不可發汗 宜桂麻各半湯”

甲午本 「少陽人外感勝熱病論」 및 辛丑本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今考更定 發熱 惡寒 熱多寒少而 身痒者 其病不輕而 猶非重證也 身不痒者 其病不輕而 已爲重證也 此證 大便過一晝夜有餘而 不通者 當用白虎湯 大便不過一晝夜有餘而 通者 當用千金導赤散 柴胡荻蕪湯 此證 桂麻各半湯 桂脾各半湯 不當用” 甲午本 「少陽人外感勝熱病論」

“論曰 此證 大便 不過一晝夜而通者 當用 荊防瀉白散 大便 過一晝夜而不通者 當用 地黃白虎湯” 辛丑本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인용조문의 용례는 그대로이나 이에 대한 설명 부분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少陽人篇에 인용된 桂麻各半湯 조문은 身痒과 身不痒에 따라 用藥을 桂麻各半湯과 桂脾各半湯으로 나누어져 있다. 身痒에 대한 언급은 甲午本에서만 나오는데 身痒하면 重하지는 않으나, 身不痒하면 이미 重한 병이라 하였다. 이것은 가려움이란 증상은 熱이 피부에 있는 것이므로 發汗하고, 몸이 가렵지 않는 것은 熱이 이미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大便을 통해 熱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甲午本에서는 桂麻各半湯 조문의 熱多寒少증상 뿐 아니라 身痒의 증상도 중요시 여겼고 表病論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辛丑本에서는 身痒의 언급 없이 직접적으로 大便을 관찰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가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熱을 처리하는 과정을 중요시 하였고 이는 少陽人에서 大便善通이 實無病의 조건이 되는 病證論이 더욱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인다. 특히 桂枝麻黃各半湯의 조문에서 清便欲自可 一曰二度發이 제외되어 있다. 이는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東武가 임의로 이 문장을 삭제한 것이고, 둘째는 東武는 『傷寒論』 원문을 보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특히 東武가 『東醫寶鑑』을 주로 인용하였기에 『東醫寶鑑』에서 桂麻各半湯을 인용하는 문장에서 위의 문장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처방용량도 상한론에는 桂枝가 君藥으로 되어 있으나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麻黃이 君藥으로 되어 있다.

25) 辛丑本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26)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 “少陽人病 以火熱爲證 故變動甚速”

27) 조문을 인용하면서 『傷寒論』 원문과는 다소의 차이를

2) 熱多寒少

甲午本에서는 少陽人 外感病을 發熱惡寒, 熱多寒少, 寒熱往來, 但熱無寒, 但寒無熱의 증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外感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후가 다른 체질에도 존재하지만 東武는 少陽人이 특히 寒熱의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였다.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惡寒 身痛 不汗出 而 煩躁者 大青龍湯主之”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必痒 宜桂麻各半湯”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

“少陽人病 但寒無熱 但熱無寒 俱爲重證而 但寒無熱者 引飲則重而畏證也 但熱無寒者 厥則險而危證也 尤不可不急治 但寒無熱者 用柴胡芫蕪湯 但熱無寒者 用白虎湯 但熱無寒者 連服芫蕪白虎寒涼藥而 厥者 病解之兆也 非熱極危險之厥也 不必疑惑”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

이상의 조문에서 보듯이 甲午本 表病論에서는 外感을 寒과 熱로 구분하려고 했고, 치료도 그에 따라 다르게 하였는데 특히 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은 防風通聖散이나 白虎湯 등으로 모두 裏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처방이다. 防風通聖散은 草本卷 따르면 發熱陽毒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²⁸⁾, 甲午本에서는 裏病중 癰疽強中에 清涼散火湯, 陽毒白虎湯과 함께 사용하고²⁹⁾, 小兒의 食多肌瘦證에도 사용하는 예³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辛丑本 表病論에서는 發熱惡寒과 寒熱往來의 증상만 구분하고 用藥도 단순하여졌다.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惡寒 身痛 不汗出 而 煩躁者 大青龍湯主之”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病論」

寒病論」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病論」

辛丑本에서는 外感의 發熱惡寒이나 寒熱往來의 증상이 있어도 荊防敗毒散으로 대부분 치료할 수 있고, 發熱의 정도에 따라 荊防瀉白散이나 荊防導赤散을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少陽人 表病論에서 發熱惡寒은 陰氣의 下降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甲午本에서 熱多寒少의 증상은 外感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辛丑本에서 熱多寒少의 증상이 비록 外感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裏熱이 상승하지 못해 나타나는 熱證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桂麻各半湯 조문이 少陽人 表病論에서 少陽人 裏熱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熱이 발생하는 병리기전에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病證用藥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IV. 結 論

1. 약물로만 볼 때는 少陰人과 太陰人 약물로 이루어진 桂麻各半湯의 용례 중 手足厥冷 煩滿囊縮의 증상은 少陰人의 太陽病厥陰證의 증상으로 보았고, 熱多寒少의 증상은 소양인 裏熱病證으로 인식하였다.

2. 少陰人은 병증용약은 桂麻各半湯 인용조문을 통해 볼 때 甲午本에서는 太陽病厥陰證을 危證으로 생각하였고 이 때 처방은 保命之主를 직접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비록 寒證이 있어더라도 表病에서 시작되었으므로 升陽益氣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3. 少陽人의 病證論을 桂麻各半湯 인용조문을 통해 볼 때 甲午本에서는 熱證을 치료하기 위해 表證이 겹쳐 있는 가를 함께 살폈고, 熱多寒少의 증상을 表陰의 下降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면, 辛丑本에서는 熱이 생기는 것은 裏陽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항상 大便의 관찰이 중요하며 이에 중점을 둔 처방과 처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더욱 정립되었다.

4. 太陰人은 裏病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2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防風通聖散 治發熱陽毒證”

29) 甲午本 「少陽人內膈大腸病論」: “癰疽強中 宜用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30)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少陽人小兒 食多肌瘦 當門二齒肉爛 或有微血 此胃熱也 當用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日一貼 或二三四五十貼 以大滑便瀉胃熱爲度”

않았으며 辛丑本에서 太陰人의 裏病을 燥熱의 病理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무는 四象體質病證論에 대해서 독창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이것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완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V. 參考文獻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4:633-732.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
3.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4.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5. 김명균, 박성식.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37-43.
6.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26-33.
7.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8. 李濟馬著. 朴性植 釋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 卷. 集文堂, 서울, 2003.
9. 蔡仁植著. 傷寒論譯註. 高文社, 서울, 1995.
10. 許浚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1999.
11. 朱肱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아티전, 서울, 1998.
12. 박경모, 최승훈. 『康平·傷寒論』의 考證을 통한 『傷寒論』과 『黃帝內經』의 비교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9:263-300.